

강원상품권 복지예산 적절성 공세

시·군 부담 없이 전액 도비 지원
가맹점 이용·지급 방식 등 지적
특위, 오늘까지 심사 진행·확정

강원상품권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복지 예산이 상임위 예비심사에 이어 예결특위 본심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는 13일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강원상품권 지급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로 300억 규모의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예산에 질의가 집중됐다. 소관 상임위인 사회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1시간 가량의 내부 격론 끝에 어렵게 전액 통과된 예산이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시·군 예산분담 없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계획의 적절성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따져물었다. 임남규(태백·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300억이 순수도비 100%로 제출됐는데 도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무리해 보인다”며 “최소한의 비율이라도 시·군과 부담을 나누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금석)에서 심영섭 의원이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서영

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종국(횡성·) 의원도 “시·군 매칭으로 더 많은 분들께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며 “어떤 분은 상품권으로, 어떤 분은 현찰로 지원받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현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영섭(강릉·무소속) 의원 역시 “상품권과 현금 지급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자칫 300억원의 예산편성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며 “상품권 가맹점도 현저

히 적는데 어르신들이 잘 찾아 쓸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상품권 가맹점 확대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원석 도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에서 의지를 갖고 역점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 예산이 충분히 있어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한다”며 “가맹점과 사업취지, 상품권 지급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4일까지도 추경안 심사를 진행, 확정할 계획이다. 김여진

업계 “치솟는 원가… 공사별 낙찰하한율 10%p 올려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100원 예산 책정, 85원 낙찰
이상의 낙찰제도 개선 시급”
정 총장 “근본적으로 공감”

종합-전문건설사 갈등 부르는
주계약자 공동도급-분리발주 등
불합리한 발주형태 개선 건의

건설업계 대표들은 13일 정양호 조달청장을 만나 건설공사 낙찰률 상향조정 등 공사비 문제와 함께 주계약자 공동도급, 분리발주 등 불합리한 발주형태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경제성장 과 일차적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건설산업이 SOC 예산 축소, 공사비 부족, 불합리한 발주형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건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입찰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양호 조달청장은 “정부입찰의 공정성 확보, 공공시설물의 품질확보,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건설업계도 경영합리화에 노력하는 한편 IoT(사물인터넷),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적극 도입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청장은 “100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85원에 낙찰하고, 나머지 15원을 불용 처리하는 이상한 낙찰제도”라는 유 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하는 등 시종일관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또 불량 골재로 만든 레미콘의 유통 차단대책으로는 “청내에 불공정거래를 만들어 레미콘업체의 지역 독점, 불공정 부분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찰관련 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이 13일 열린 '조달청장 초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정양호 조달청장을 비롯해 이현호 건설사업국장 등 조달청 관계자들과 유 회장, 정성욱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장 등 시·도회장단과 대형 건설사 임원 등 건설업계 인사 12명이 참석했다. 안윤수기자 ays77@

류 열람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정성욱 금성백주주택 대표(건협 대전시회장)의 건의에 대해선 “300억원 이상 공사는 4월부터, 300억원 미만 공사는 오는 7월부터 입찰공고 때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달청장 간담회의 첫 표본은 정대영 삼흥종합건설 대표(건협 전북도회장)가 열었다. 정 대표는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수행능력 심사기준 가운데 배치기술자의 6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폐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배치기술자 심사점수는 최대 격차가 1.4~1.6점으로 낙찰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그는 “발주계획 및 수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간 고용을 유지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종합심사낙찰제의 조달청 평균낙찰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적정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장치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의 중심제 평균

낙찰률은 작년 1분기 81.38%에서 4분기에 79.21%로 80%대가 무너졌다.

김 상무는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중심제 균형가격 산정방식 개선(상위 제외금액 범위 : 40% 이상~20% 이상) △단가 심사 적정단가 기준 하한선 상향(-18%→-10%) △중점자 처리기준 개선(저가투찰자→균

형가격에 근접한 자) 등을 주문했다.

이덕인 정일종합건설 대표(건협 인천시회장)도 적격심사낙찰제 낙찰 하한율을 높여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적격심사 공사는 지난 17년간 낙찰률이 고정된 반면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확대 등으로 원가 올랐다”며 “공사규모별 낙찰 하한율

을 10%p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평균 낙찰률은 평균 92% 수준이며 100%를 넘는 투찰사례도 빈번하다.

진상화 현대건설 상무는 “조달청 시설공사 자재가격은 ‘관급자재’ 구매 시에만 활용하고 ‘사급자재’에 대해서 시중물가지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PVC 지수판(150m×5T)의 경우 물가지 평균가격은 2933원인 반면 조달청 가격은 2200원으로 25% 격차가 난다.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건협 강원도회장)는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지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 같은 분리발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사업비 증가로 국민세금 낭비 초래 △책임소재 규명 곤란으로 인한 하자보수 지연 △근로자 보호 배치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발주공사 중 기계설비 분리발주 건수는 전체의 30%(금액기준 1.2%)에 달한다.

이울리 조준현 건협 정책본부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물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하도급자 간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주계약자 방식이 종합-전문 간 갈등을 증가시키고 동반성장, 상생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정양호 조달청장이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청장은 이 자리에서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양호 조달청장 “하락하는 중심제 낙찰률 손봐야”

건설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정양호 조달청장은 13일 “점점 하락하는 종합심사낙찰제(중심제) 낙찰률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회장단, 대형 건설사 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중심제 낙찰률이 점점 떨어진다”(김경준 대림산업 상무)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반면 “중심제 배치기술자 기준을 폐지해 달라”(정대영 삼흥종합건설 대표)는

건의에는 “고용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당분간 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3면
또 주계약자 공동도급, 기계설비·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한 요구(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 전문업체 부족으로 “종합업체들의 입찰기회가 박탈된다”(배인호 석호건설 대표)는 주장과 관련, “시장규모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짧게 책정하는 건 점도 우려를 기준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의견에 대해 정 청장은 “가점노무비율 현실화를 위해 연구용역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술형인찰의 수의계약 가격협상 시 식감위주 협상”(양기철 포스코건설 상무) 문제 개선을 위해 △발주기관 검토 가격 △설계 보정을 △공사 보정을 등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토.일요일자 신문 쉽니다

2월 국내건설수주 13.6兆... 작년보다 23.5% 늘었지만

대형공사 쏠림... 중소기업은 울상

3.3조원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등
1000억 이상 다수... 소형공사 '↓'

건설수주가 2월에도 호조세를 이어갔다. 다만 일부 대형공사의 쏠림현상 탓에 중·소형 건설사들은 '뿔오 속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가 13일 발표한 국내 건설수주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13조639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5% 증가했다.

단일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민자발전인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수주 상승을 주도했다. 수주액 3조3000억원으로, 2월 전체 수주액의 24.3%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민간 토목의 수주가 급증한 반면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으면서 민간 건축은 감소세로 전환됐다.

발주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 수주액은 3조906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3% 늘었고, 민간부문은 9조7324억원으로 21.7% 증가했다.

고속도로 제400호선 과주~양주·포천간 건설공사, 부산 하수관로 신설(확충)공사 등 공공 토목(1조5501억원)이 2.3%

증가했고 하남감일지구 B6·C2·C3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 중이온가속기 시설 건립공사 등 공공 건축(2조3568억원)도 54.0% 늘었다.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공사, 부산신항 2-4단계 토목공사 등 민간 토목(3조8640억원)은 3조원대 대형 프로젝트 수주와 기저효과 등으로 무려 41.54%나 급증했다. 개포 주공4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청주 흥덕파크자이 신축공사 등의 민간 건축(5조8684억원)은 19.1% 감소했다.

공공과 민간을 합친 전체 토목 수주액은 5조4141억원으로 139.0% 증가했고, 건축은 8조2251억원으로 6.3% 감소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2월 전체 건설수주는 1월에 이어 20%대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속내를 보면 100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 많고 소형공사는 건수가 줄어 중·소업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2월 국내 건설 기성액(경상기준)은 9조655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1% 증가했다. 공공이 10.0%, 민간은 37.4% 각각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건축과 토목이 각각 37.3%, 13.8% 늘었다. 김태형기자kth@